

2025 경기예술지원 시각예술분야 【창작】지원 심의평

2025년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시각예술 분야 <창작> 지원 심의는 총 3차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시각예술 분야-창작지원>에는 312명이 지원하였으며, 4명의 심의위원이 숙고한 끝에 최종적으로 18명의 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선정자에 대한 심의평 및 심의 전체에 대한 총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 선정에 있어서는 각 지원자의 기획서가 그간의 작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궤적을 그리는지, 그 차이의 궤적에서 생산, 발견하는 동시대적 질문의 유효성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는 현재의 작가적 실험이 자족적인 것이 아닌, 개인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이 교차하는 좌표를 살피는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우수 선정자의 이번 기획은 그간 진행, 발전시켜온 프로젝트로부터 유의미한 확장과 심화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단순히 같은 주제의 반복보다는 거대한 명제 아래 세밀하게 질문의 방향을 설정한 듯 보였으며, 인간과 자연, 생과 죽음 등에 대한 도발적 혹은 윤리적 질문을 도출하면서도, 그것의 표현과 제시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다층적 감각으로 경험, 사유하게 하는 전시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제안서라고 판단되었다.

○ 2025년도 경기예술지원은 경기권에 거주하는 다양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령대와 장르, 매체 부분에서 다양함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경기예술지원의 특성 상 지난 선정자가 새로운 실험이나 실천을 위해 다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 주기 등을 고려하고, 기획서와의 대조를 통해 어떠한 새로움을 찾고자 했는지 등이 고민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하나의 판단 기준을 토대로 지원자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그간의 작업과 지원서 내의 계획에서 차이, 즉 예술적 실험성이나 성장 가능성, 혹은 참신성이나 작업적 심화, 더 나아가 지역 특유의 색을 넘어 동시대미술과의 접점 등을 가늠하며 면밀히 고민하였음을 알린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배경으로 동시대 매체의 조형 언어 안에서 독자적인 예술 언어의 발전을 꾀하려는 시도, 동시대 담론 측면에서의 유효함, 더 나아가 세대별 작업에서의 실천/실험 주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을 진행하였다. 이번 경기예술지원에 지원한 모든 흥미로운 예술가들 모두에게 지원금이 돌아갈 수 없음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본 심의를 토대로 이후의 프로그램과 지원방향 등에 어느 정도의 좌표값을 제시해줄 수 있길 기대해본다.

이번 사업 심의에 있어서 지원자가 지속해 왔던 창작 역량과 작업의 예술성, 독창성, 그리고 신작 지원 사업이라는 공모에 부합된 목표의식과 실행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심의 하였다. 제출한 창작계획서 심의와 작가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구축해온 다양한 주제의식과 동시대적 예술 담론들을 각자의 예술적 표현 형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

한 과정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창작지원사업이라는 공모의 취지와 전시를 통한 신작 발표 목적에 부합된 구체적인 계획과 기대효과, 그리고 기존 창작 형식을 연장시킨 계획안이 아닌 작가 고유의 조형 언어를 발전시키려는 시도와 향후 활동에 있어서 성장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지원자를 최종 선정 하였다.

심의를 진행하면서, 공예부터 디지털 기반의 아트 & 테크 작업까지 폭넓은 범주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각 작품의 창작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단순히 작가의 경력 유무(화려한 경력을 크게 고려하거나 역으로 경력이 길다고 심사에서 제외하지 않고)보다는 기존 작업에서 한 단계 도약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와 최근 보기 어려운 독창적인 공간성, 장소성, 자기참조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돋보이는 작품에 더욱 주목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전통적인 장르인 회화, 조소, 사진 매체를 활용하는 제안이라도 작품 안에서 밀도가 높고, 장르적 특성 안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엿보이는 작업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지원서류를 들여다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지원자의 연령대, 지원 분야도 매우 다양했다. 이 작가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업을 해오고 있는 작가들의 노고에 대한 고마움, 그런 작가들에 대해 공공지원의 혜택 폭이 이렇게 약소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미안함이다. “지원자 역량” 항목에서는 지원자의 지속적인 예술활동 여부를 살펴보았다. 꾸준히 작업활동을 해왔다는 건 그만큼 작업에 대한 진지함과 성실성을 증명하는 것일테니. “예술성, 독창성” 항목을 위해 지원서에 명시된 기존 작업들을 세심히 평가해 보아야했기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링크를 따라 들어가 지원자의 다른 작업들도 보았는데 내가 심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 정도로 신선하고 독창적이었다. 당연히 이런 작가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목표부합성/실현가능성” 항목에서는 이 지원으로 구현할 작업 계획서가 얼마나 성실하고 구체적인가를 따졌다. 작업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있고 그에 따른 하나하나의 고민들이 녹아들어있다면 그만큼 오랫동안 이 작업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말이다. 평가를 하다 기존 미술의 형식이나 시각적 문법을 넘어서는 새롭고 흥미로운 작업을 해나가는 작가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지원작가들에게 감사드린다.

2025. 3. 6.

심의회원	김남시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
심의회원	김성우	프라이머리 프랙티스 디렉터
심의회원	민성홍	시각예술 작가
심의회원	홍보라	팩토리2 디렉터